

편집 및 발행인 : 김중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아-태 지역, 글로벌 특송시장 주요 지역별 점유율 5년 연속 1위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베트남 호치민, 신규 대형 '컨' 터미널 개발 계획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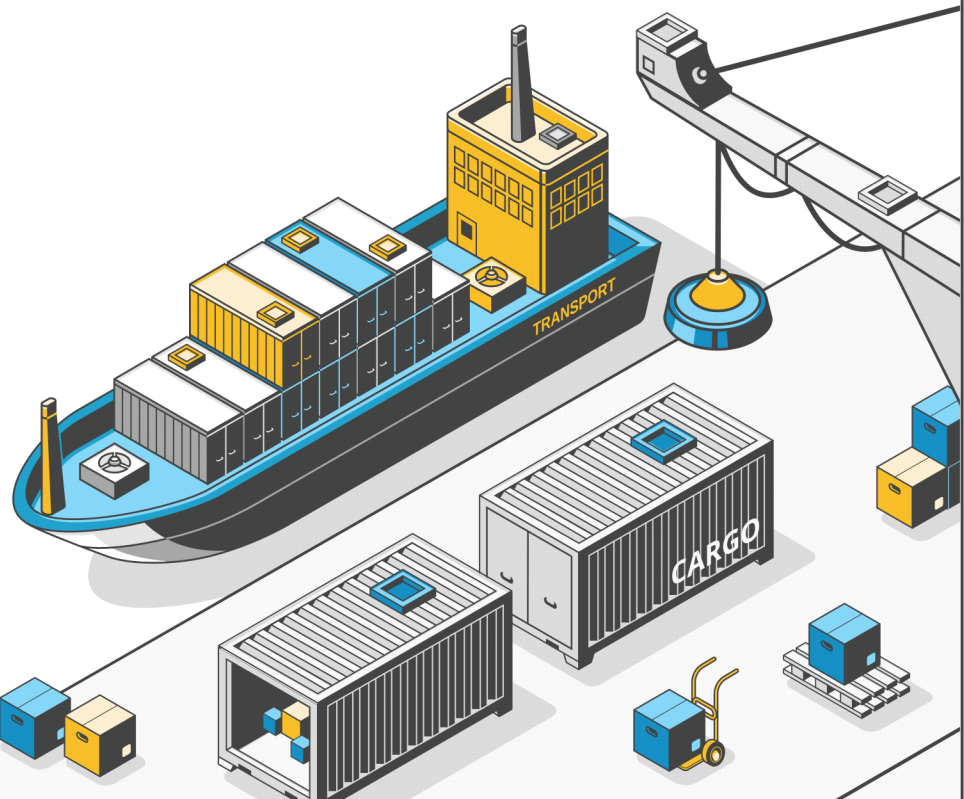
- 미국, 공급사슬 지연으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취소
- 캐나다 동부 배수시설 부족으로 서부 해안 혼잡 가중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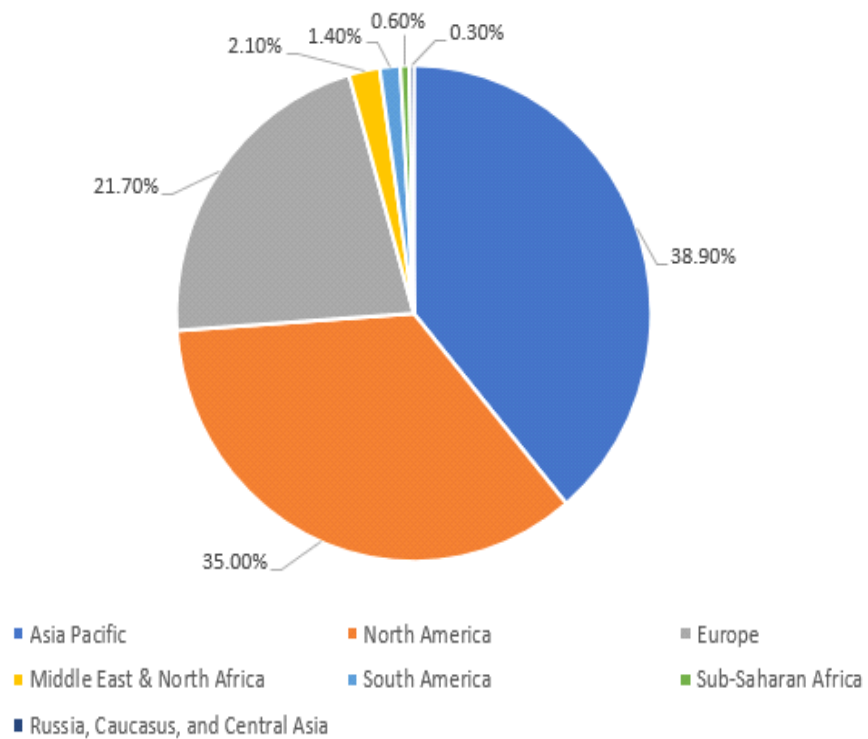
- 202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 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아-태 지역, 글로벌 특송시장 주요 지역별 점유율 5년 연속 1위

- ▶ 지난해 주요 지역별 글로벌 특송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17년 이후 5년 연속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송시장 규모는 1,796억 5,610만 유로로 전체 글로벌 특송시장 규모 4,621억 3,800만 유로의 38.9%를 차지함
 - 다음으로 북미와 유럽 지역이 각각 35%(1,615억 8,030만 유로), 21.7%(1,002억 1,060만 유로)를 차지함

주요 지역별 글로벌 특송시장 점유율(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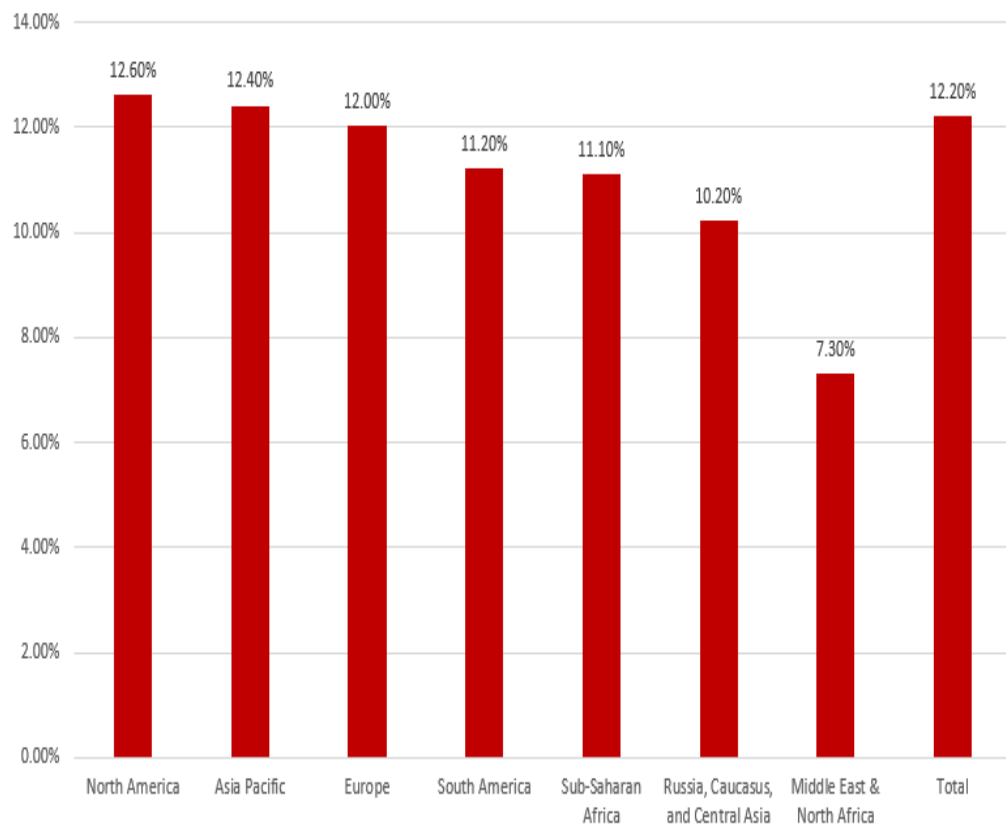


자료: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Express Market Size and Forecasting 2021-2026*, 2022.

● 반면, 지난해 주요 지역별 특송시장을 성장률을 살펴보면 북미, 아시아-태평양, 유럽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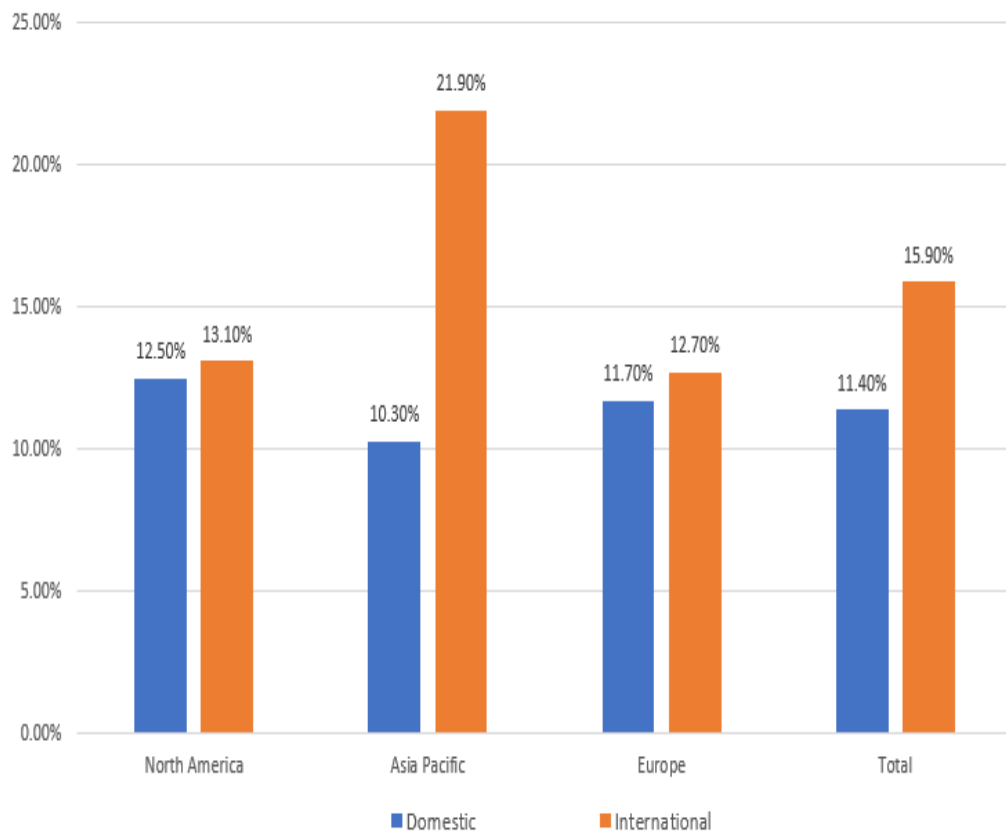
- 지난해 북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송시장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각각 12.6%, 12.4%로 글로벌 특송시장 평균 성장률 12.2%를 상회함
- 지역별 국내 및 국제 특송시장 성장률을 살펴보면 북미 지역의 경우 국내 및 국제 특송시장은 각각 12.5%, 13.1% 성장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국제 특송시장은 21.9% 성장했지만 국내 특송시장은 10.3% 성장해 큰 편차를 보임

주요 지역별 특송시장 성장률(2021년)



자료: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Express Market Size and Forecasting 2021-2026*, 2022.

주요 지역별 국내/국제 특송시장 성장률(2021년)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Express Market Size and Forecasting 2021-2026*, 2022.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Express Market Size and Forecasting 2021-2026*, 2022.

베트남 호치민, 신규 대형 '컨' 터미널 개발 계획

- ▶ 베트남 호치민시가 Can Gio 지역에 신규 '컨' 터미널을 개발할 계획임
 - 호치민시와 베트남 교통부는 호치민 동남쪽 인근 Can Gio 지역에 60억 달러 규모의 '컨' 터미널을 개발할 예정임
 - 신규 '컨' 터미널은 환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건설할 예정이며, 싱가포르항 및 포트 클랑 등과 같이 글로벌 환적 거점 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베트남 국영기업 VIMC(Vietnam Maritime Corporation)과 글로벌 선사 MSC가 파트너십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 터미널 건설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 신규 터미널 개발 예정 지역은 수심이 깊어 초대형 선박이 입항 가능하며, 자연재해의 영향도 적어 글로벌 환적 터미널 구축에 이상적임
 - 신규 '컨' 터미널 예정 지역은 호치민 동남쪽 Can Gio 지역으로 주변 대비 수심이 깊고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이 적어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신규 '컨' 터미널은 최대 250,000톤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24,000TEU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접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호치민 인근 '컨' 터미널 현황 및 신규 터미널 개발 지역(Can Gio)



자료 : 저자 작성

- 신규 '퀵'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는 총 길이 약 7.2km, 면적 약 5,700,000㎡에 달하며 총 7단계로 나누어 건설될 계획이며, 2040년 완공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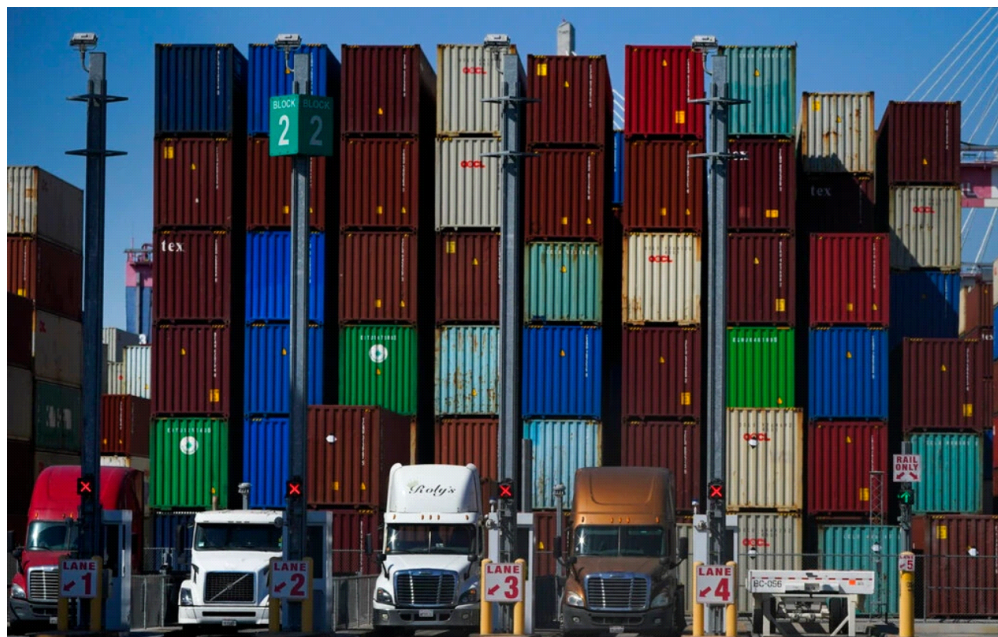
 - 신규 '퀵' 터미널의 처리능력은 연간 약 1,500만 TEU 수준으로 총 7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건설될 예정임
 -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시작해 2027년 완공 후 일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전체 건설 공사는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

-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건설되는 '퀵' 터미널은 매년 증가하는 항만 물동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뿐만 아니라 환적 터미널 구축을 통해 향후 자국 경제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공급사슬 지연으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취소

- 지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애리조나주 피닉스(Phoenix)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취소됐음
- 캔자스주 오타와(Ottawa)에서는 2월에 주문한 불꽃놀이 품목이 아직도 부산 운송 중이며 2달 뒤에 있을 노동절 축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음
-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 행사를 열지 못했으며 공급망 혼란으로 올해도 취소되어 3년 연속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놀이 축제가 불발됐음
- 중국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불꽃놀이 제품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National Pyrotechnics Association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행사용 불꽃놀이 제품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음
 - 포브스에 따르면 폭죽과 병 로켓(bottle rocket)과 같은 상업용 제품의 경우 그 비율이 94%까지 올라감

미국 롱비치 항만에 적체된 컨테이너



자료: VOA 「Cities Cancel Fourth of July Fireworks Due to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Staffing Shortages」
(2022.7.2.) 기사 참조

- > 중국은 금년 4월과 5월에 상하이를 포함한 많은 도시에서 엄격한 코로나19 봉쇄를 시행해 글로벌 공급사슬에 심각한 지연을 초래했음
 - 해상운임이 치솟고 항만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수출입 컨테이너가 항만에 적체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운임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공급사슬 전문가인 닉 비야스(Nick Vyas) 부교수는 지난 28개월 동안 글로벌 공급사슬 붕괴로 인한 피해는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지진 중 하나인 칠레 대지진과 비교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칠레 대지진

- 1960년 5월 22일 칠레 발디비아(Valdivia)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관측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진으로 리히터 규모 9.5를 기록했다
- 이 지진의 여파는 하와이, 일본, 필리핀, 알래스카까지 영향을 미쳤음

캐나다 동부 배수시설 부족으로 서부 해안 혼잡 가중

- ▶ 지난해부터 발생한 산불과 홍수 등으로 캐나다 서부의 공급사슬 혼잡이 계속되고 있음

 -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의 밴쿠버 지역은 지난해 산불과 홍수로 인해 도로와 철도 기반 시설이 마비되었음
 - 그리고 지난겨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철도 문제가 악화하는 등 일련의 사고로 인해 지난여름부터 공급사슬 혼잡이 계속되고 있음
 - 반면, 캐나다에서 미국행 화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캐나다 동부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프린스 루퍼트(Prince Rupert)항을 통한 화물 흐름은 비교적 원활했음
- ▶ 캐나다 동부의 배수시설 부족 및 내륙 병목 현상으로 서부 해안 항만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음

 - 캐나다 동부에 서부로부터 오는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시설(Drayage)이 부족해 서부 터미널에서 화차 적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수입품의 내륙 이송이 늦어지고 있음
 - 프린스 루퍼트항의 데이터에 따르면 항만의 물동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 증가했고 동기간 밴쿠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해, 컨테이너 물량이 아니라 내륙 병목 현상이 항만 혼잡의 원인임을 알 수 있음
 - CIFFA(Canadia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의 Julia Kuzeljevich 홍보 관리자는 “동부의 토론토에는 화물을 처리할 트럭 운전사의 부족으로 화물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초 누계 기준으로 전체 트럭 입차 수는 18.5% 감소했다”고 전함
 - CIFFA는 지난 5월 토론토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배수시설 부족 문제가 몬트리올까지 확대됐다고 밝힘
 - 또한, CIFFA의 홍보 관리자인 Julia Kuzeljevich씨는 “캐나다의 두 철도 CP(Canadian Pacific Railway)와 CN(Canadian National Railway) 모두 철도 허브 혼잡을 겪고 있다”라고 전함
 - 밴쿠버항에 따르면, 밴쿠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인 GCT 델타포트에서 CP와 CN의 컨테이너는 지난 화요일 평균 7일 이상 체류했으나, 수요일의 평균 체류 기간은 CP 컨테이너의 경우 5~7일, CN 컨테이너의 경우 3~5일로 감소했고, 목요일에 CP 컨테이너는 여전히 5~7일 동안 머물고 있었지만, CN은 다시 7일 동안으로 증가했음
 - 내륙 시설의 혼잡으로 인해 두 철도 회사는 밴쿠버와 프린스 루퍼트에 얼마나 많은 열차를 배차할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차 수용 능력이 감소했지만, 해상 터미널의 상황은 유동적이며 철도 체류 기간은 매일 바뀌고 있음

캐나다 배수 설비 부족으로 공급사슬 혼잡 문제 야기



자료 : www.joc.com, (검색일 : 2022.07.05.)

➤ 캐나다의 철도회사는 공급사슬의 모든 참여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전함

- CN은 성명을 통해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배수 및 창고 용량 제약이 너무 만성적이어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잠재적인 백업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전함
- CP는 복합운송 화물의 많은 양이 항만의 과도한 컨테이너 체류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하며, 성명을 통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사슬의 모든 참여자가 협력해 장비를 신속하게 픽업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전함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 EU 의회가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시키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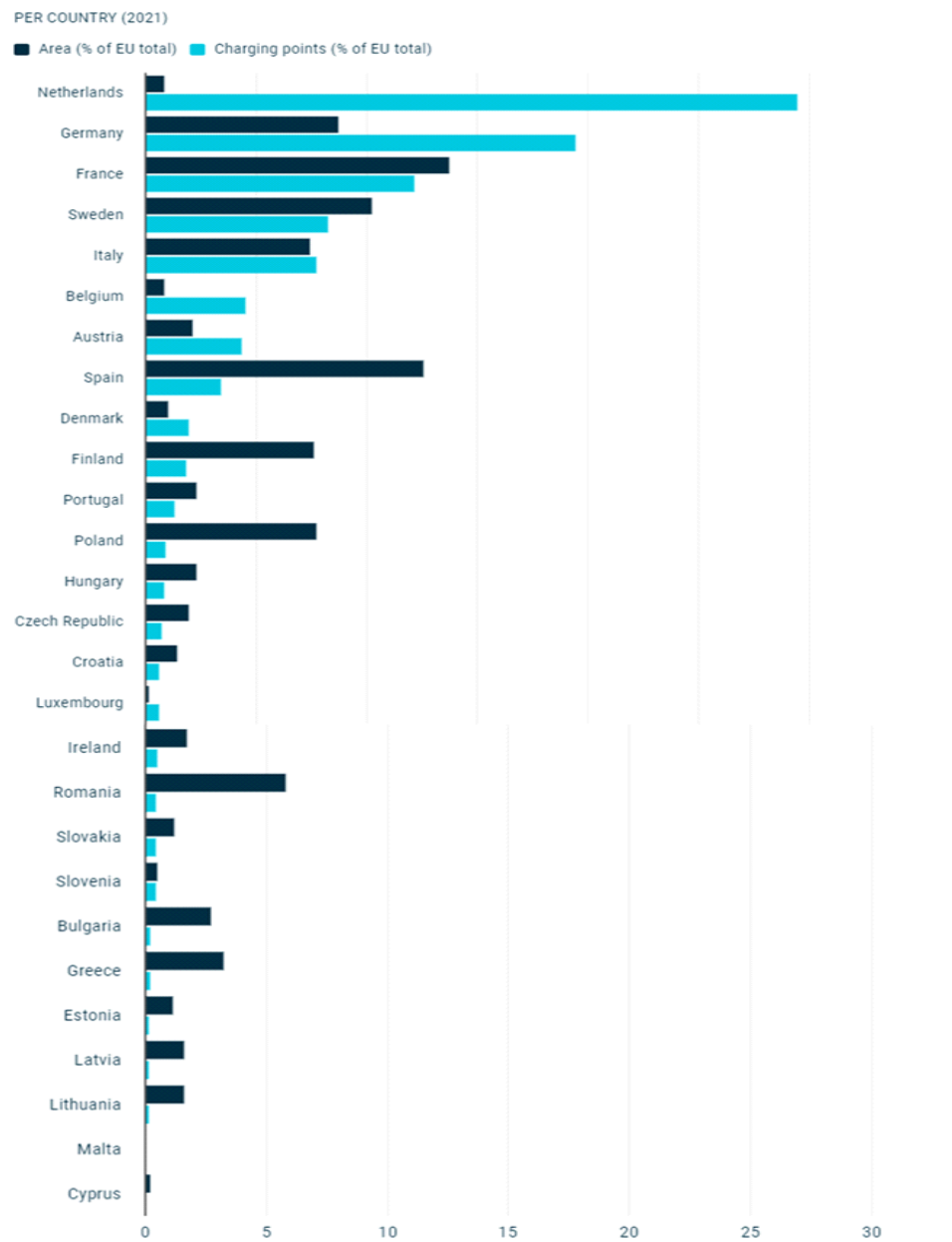
 - 6월 29일 룩셈부르크에서 27개 회원국은 EU에서 신차의 CO2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한 협정을 승인함
 -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예정임
 -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중단에 관해서는 2026년 논의하기로 결정함
-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종료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소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이 요구됨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모델은 완전 충전 시 평균 326Km를 주행 하므로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여러 번의 충전을 위한 휴식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충전을 위한 휴식 시 넓고 쾌적한 충전 휴게소와 도로 네트워크 안에서 잘 짜인 충전소 네트워크가 충분히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유럽자동차 제조업 협회(ACEA)에 의하면 유럽연합 내 전기 충전소의 절반이 네덜란드(90,000개 충전기)와 독일(60,000개)의 두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 전기 충전소의 절반이 두 국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국가의 영토는 EU 총 영토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 나머지 절반의 충전소는 EU 영토의 90%에 흩어져 있음
 - 따라서 충전소 인프라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례로 네덜란드보다 영토 면적이 약 6배 큰 루마니아는 EU 전체 충전소의 0.4%를 보유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EU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 수가 180%로 크게 증가했으나, 총 수는 307,000개로 필요 수에 훨씬 부족한 수치임

 - CO2를 55% 감소하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공공 전기 충전소는 최대 680만 개가 필요함
 - 따라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되기 전까지 충전소 공급이 가속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대 면적

자료 : www.acea.auto, (검색일: 2022.07.06.)참고자료 : www.chinadaily.com.cn, <https://today.rtl.lu/news>, www.acea.auto, (검색일 : 2022.7.6.)

202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2년 6월 23일(목) 09:00 ~ 8월 4일(목) 18:00

■ 사업대상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보조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조달, 생산,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컨설팅 비용의 50% 보조

■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털(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실시
www.youtube.com/watch?v=g1NNUz8iYQY

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2022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신청기간

2022. 6. 13.(월) 09:00 ~
2022. 9. 2.(금) 18:00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인증기준 및 절차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2022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에 따름
- 최종 결과발표(예정) : 2022년 12월 중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문의 요망

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인증 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방법

- E-mail 접수(아래주소 참조)

신청 수수료 납부

- 신규 인증 : 300만원, 정기점검 : 150만원
- 납부 계좌: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김동환 전문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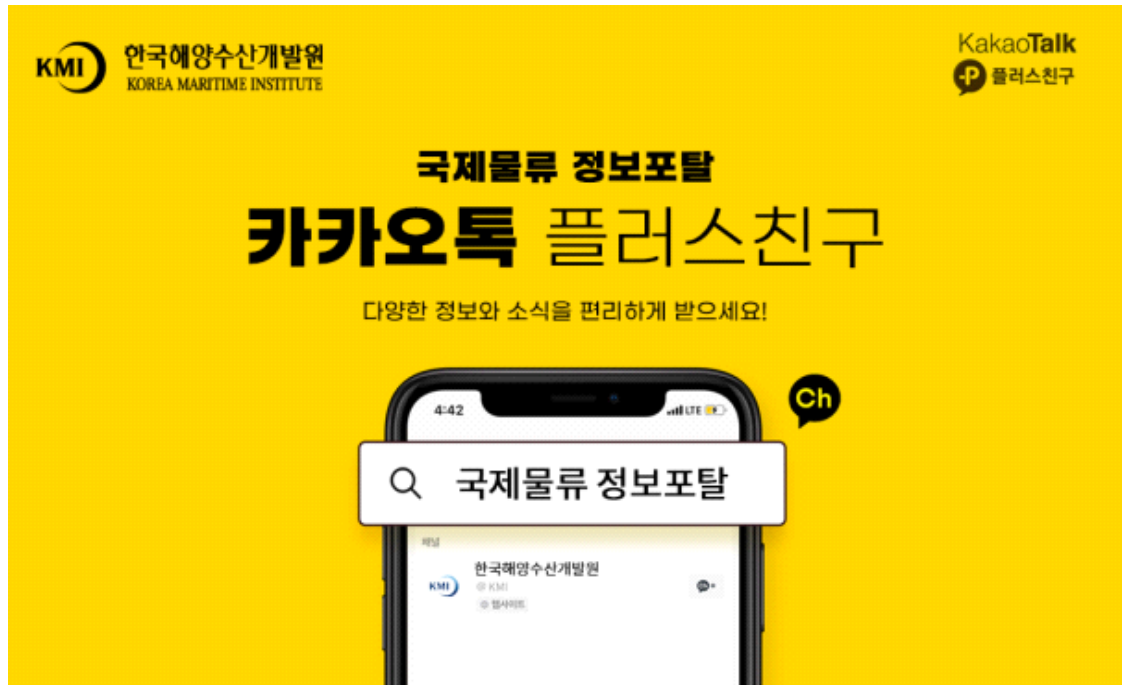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물류창고업등록증(사본) 1부
- 공적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현황

| | | | |
|----------------|------------------|-------------------------------|------------------|
| 2021 우수국제물류(주) | 2020 (주)디엔비로지스틱스 | 2019 비아이디씨(주) | 2018 (주)비엔피로지스틱스 |
| 2017 (주)대평 | 2016 동원로엑스(주) | 2015 (주)C&S국제물류센터, 캄트로지스부산(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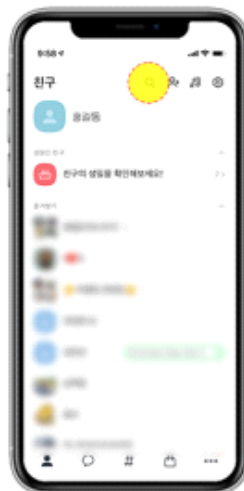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